

국민연금 신임 이사장 취임... 기금운용 손질 속도내나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취임한 가운데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배구조 개편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대표소송 관련 2기 소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한 차례 회의를 한 뒤 새로운 회의일을 잡지 않았다.

사용자 측이 법률자문을 새로 받아 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사용자 측 법률자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논의를 잠정 중단할 전망이다.

앞서 국민연금 대표소송안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법률자문을 맡은 법무법인(로컬) 3곳은 모두 '적법하다'는 의견을 보전복지부에 회신했다.

대표소송 소위원회 새 회의 없어...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

이에 따라 대표소송안을 논의하는 소위원회가 다시 가동돼 지난달 첫 회의를 열었다. 당초 해당 회의를 통해 도출한 합의안을 다시 기금위에 상정해 판단을 구하려 했으나 밀리게 될 전망이다.

오는 23일 예정된 기금위 회의에 법률자문 결과를 담아 안전을 중간 보고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대표소송 일원화 방안이 확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에 따라 기금위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

리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라는 점 등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와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투자공사(KIC)처럼 공사화하는 방안이 거론돼 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인사와 운영을 법인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 한 차례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아울러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전문가 위주인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모델로 변경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금본부 공사화만큼 '지배구조 단순화'는 아니지만 위원들을 모두 전문가들로 구성해 기금운용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중이다.

기금위는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단체들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다. 기금운용 이력과 무관한 인사들이 들어와 전문성 부족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며 "연금 개혁이라는 큰 그림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농협자산관리 전복지사 추석 맞아 농업인 격려 방문

농협자산관리전복지사(지사장 조인갑)가 농업인 신용회복컨설팅을 통해 신용을 회복한 농업인에게 추석 명절을 맞아 '농업인 들기행사'를 실시하며 희망을 전하고 있다.

조인갑 농협자산관리전복지사장과 송혁 농협전주완주사군지부장, 유해광 소양농협 조합장은 7일 완주군 소양면 농가를 방문하여 격려하고,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지원을 받은 소양면 김씨는 "부실화된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신용회복컨설팅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었다"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따뜻한 명절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를 전했다.

한편, 농협자산관리전복지사가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희망동행 프로젝트'는 농업인 신용회복컨설팅 제도로 신용을 회복한 농업인에게 채무로 힘들었던 시간을 잊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갈 수 있도록 범농협이 함께 응원과 격려로 재기 의지를 북돋아주는 프로젝트이다.

조인갑 지사장은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농업인들이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 컨설팅과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안전 먹거리 공급, 신뢰도 '쑥쑥'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전북도 인증

익산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이 개장 1년만에 전라북도 대표 직매장으로 인증받았다.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운영자인



로 전북도 소비자 모니터링단으로부터 매월 1~2회 불시 현장에서 무작위로 출하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또한 인증 직매장에 대하여는 전북도 자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기점 및 우선지원과 정부포상 및 도시사 표창 우선심사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장현을 시장은 "익산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이 대내외적으로 인정 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재단 농업인, 행정이 안전하고 신선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유통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은 올해 4곳의 신규 인증을 포함해 총 19개소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7일 도내 일자리 유관기관과 도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력단절예방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성경제활동법 시행 따른 새일센터의 역할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예방 활성화 포럼 열어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전정희)는 7일 도내 일자리 유관기관과 도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력단절예방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와 성평등한 노동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새일센터의 역할과 여성노동시장의 현황과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여성경제활동법 시행은 이미 새일센터가 다양하게 추진하던 여성취업 관련 사업들이 법에 기반해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며 "새일센터 고용서비스를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취업 여성 지원

전면화 △직업 교육훈련 추진 다각화, △새일센터의 기업 지원 사업 전면화 △새일센터 사업 인프라 강화 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후에는 전정희 센터장의 진행으로 토론이 진행, 토론자료는 △김은경 중앙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정책개발팀 팀장, △이진순 전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센터장, △조경숙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백승만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장, △김익자 전북여성노동자회 회장이 참여했다.

특히 김은경 팀장은 전북지역 여성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전국 수준보다 낮은 점은 여성근로자의 일자

리 질에 대한 문제로 연결되고 경력단절예방이 강화됨에 따라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여성일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정책수단의 다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정희 센터장은 "여성경제활동법으로의 개정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에서 경제활동 촉진과 예방으로 정책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여성경제활동법"이 보다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와 노동시장의 성평등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익하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팀(063-254-371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남원 지리산농협, 상호금융 대출금 1000억 달성탑 수상

남원 지리산농협(조합장 정대환)이 지난 5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상호금융대출금 1,000억 달성에 대한 달성탑을 수상했다.

지리산 농협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금리변동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신용사업 추진을 통해 6월말 기준 1,005억원의 대출금을 달성했으며, 상호금융대출금의 신장은 타농협과 연계한 공동대출 등 다방면에 걸친 대출추진으로 이뤄낸 성과여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리산농협의 대출금은 2018년 말 759억원에서 2022년 1005억원으로 약 250억원이 증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남원=김기우 기자

펀드·일임형ISA 비대면 신규가입 이벤트

NH농협은행 전북본부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는 가을을 맞이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인터넷·스마트뱅킹에서 펀드 또는 일임형ISA를 신규 가입한 고객과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 고객을 대상으로 푸짐한 경품을 추첨 제공하는 'Hello! Mellow! Autumn'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벤트 1은 펀드 또는 일임형ISA에 가입하면 자동 응모되고 추첨을 통해 다이스 에어랩 멀티스피일러 컴플리트(3명)와 신세계모바일상품권 50만원(5명), 배달의민족 1만원 쿠폰(252명)을 제공한다.

이벤트 2는 NH농협은행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을 팔로우하고 9월중 게시되는 해당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을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이벤트 3은 NH농협은행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을 팔로우하고 10월중 게시되는 해당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을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신세계모바일상품권 1만원을 제공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은행 인터넷·스마트뱅킹이나 가까운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송편·햅쌀로 추석 명절 훈훈하게

전북농협, 농가주부모임 전북연합회 등과 나눔 행사 개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농협육성 여성조직인 농가주부모임 전북연합회(회장 이경자)·고향주부모임 전북도지회(회장 정명숙)는 7일 농협전북본부에서 시·군 대의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3분기 정기 이사회 및 추석맞이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상반기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과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후 회원들은 도



전북농협과 농협육성 여성조직인 농가주부모임 전북연합회·고향주부모임 전북도지회는 7일 농협전북본부에서 시·군 대의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3분기 정기 이사회 및 추석맞이 나눔 행사를 가졌다.

농협생육민운동본부의 후원으로 송편과 햅쌀을 600여 가구에 직접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전주상의, 추석 맞아 사회복지시설에 쌀 전달

전주상공회의소는 7일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복지지원 시설에 지원 물품을 전달했다.

전주상의는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 4곳에 600만원 상당의 도내지역에서 생산한 백미를 전달했다.

전주상의 측은 "특히 올해는 쌀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업인을 위한 전북 쌀 지키기 88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며 "우



리 주변 이웃들과 함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모두가 함께 여유로운 명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뉴시스